

전국 첫 '스마트진료' 전남대병원 모바일서비스 이용해보니

예약부터 약 처방까지 한번에

30분 걸렸던 접수 3분이면 'OK'

알림음으로 진료순서 실시간 확인

정민지(여·26)씨는 1일 전남대병원 1층 번호표 발행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3일 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약한 진료 스케줄이 표시됐다. 번호표를 받은 뒤 접수까지 30분 넘게도 걸렸던 대기 시간이 불과 3분 만에 끝났다.

접수 뒤 안내 도우미를 붙잡고 물어보거나 1층 병원 안내 표시에서 찾아가야 할 호스피스내과 위치를 물어지게 들어다볼 필요도 없었다. 가야할 4개 진료과 위치는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만큼 친절하게 알려줬다.

호스피스내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대기 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 화장실을 다녀와도 될 지, 기다려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진료 뒤 들여다본 스마트폰에는 처방전에 들어간 약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 지 복용법도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전남대 병원이 확 달라졌다. 스마트폰 하나로 예약부터 병원 진료실 위치, 처방 약 복용법까지 알 수 있는 '똑똑한' 시스템을 갖춘 뒤부터다. 오래 전 워낙 많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복잡하고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받아들여졌던 종합병원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남대병원이 지난달 도입한 모바일 진료 서비스는 진료 대기순서·예약 및 예약 조회·예약 알림·병

원 내 진료 과 길 찾기·복약 안내 등의 서비스를 갖췄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파악,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진료 대기 순서 안내의 경우 전국 병원 중 최초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진료 순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5번째 안에 들면 '알림음'으로 알려줘 예전처럼 진료과 앞에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병원 내 150곳에 붙여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을 대면 현재 위치와 가야할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몸이 아파 급하게 찾은 병원에서 찾아갈 곳을 몰라 당황하는 환자들을 배려한 조치다. 스마트폰 하나면 처방전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자신이 받은 처방전에 적힌 약이 무슨 약인지 의료진에게 재차 물어볼 필요도 없다.

모바일 진료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환자들 반응은 폭발적이다. 하루 평균 4000명에 육박하는 이용객들의 경우 왜 진작 도입하지 않았냐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접수 시간이 예전보다 10분 가량 빨라지면서 몸이 아픈 채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사라졌고 그만큼 환자들 표정도 한층 밝아졌다고 한다.

정민지씨는 "스마트폰 모바일 진료서비스 덕분에 종합병원 진료 받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모바일 진료 예약 신청을 보완해 병원에서 접수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진료과로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병원을 찾은 한 시민이 진료실 옆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자신이 가야할 목적지를 찾고 있다. 전남대병원 모바일진료서비스는 길찾기 외에도 진료예약, 대기순서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재국 컬렉션' 없는거 빼고 다 있었다

<전두환 장남>

검찰, 추징 미술품 일부 공개... 장사오강·천경자 등 작품 눈길

'김환기, 천경자, 겸재 정선, 현대 심사정, 데미언 허스트, 프랜시스 베이컨...' 소문만 무성했던 '전재국 컬렉션'이 일부 공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합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확보한 미술품의 목록 중 일부를 1일 언론에 공개했다.

전세 장남 재국씨가 수집한 소장품 600여점 중에는 압류 과정에서 이미 일반에 알려진 것들 외에도 수익원을 호가하는 국내의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이자 파리, 뉴욕 등지에서 활동하며 명성을 얻은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가 눈에 띈다. 한국의 대표적 여성 화가이자 상징주의의 대가인 천경자 화백의 '여인'도 인상적이다. 한 여인이 붉은 꽃을 한아름 들고 서 있는 그림이다.

또 조선시대 거장인 겸재 정선, 현대 심사정 등의 진경 산수화와 호생관 최복의 풍류화도 검찰에 확보된 미술품들 중에 들어있다.

재국씨의 '안목'은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도



천경자 작 '여인'



장사오강 작 '열연 시리즈'

미쳤다.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장사오강(張曉剛)의 관화 '열연 시리즈'가 재국씨의 컬렉션에 포함됐다. 유명 설치 미술가인 데미언 허스트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를 본뜬 실크스크린 판화, 프랜시스

베이컨(1909~1992)의 판화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전세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양화가 이대원(1921~2005) 화백의 풍경화 '농원' 1점을 압류해둔 상태다. 120호 크기의 이 그림은 수익원 상당의 고가로, 이번에 확보된 미술품 중 가장 값이 나가는 작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면 '흔들리는 조선대'서 계속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조선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부여한 긴급처리권 때문이다. 긴급처리권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이사들에게 이사회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권을 준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긴급 사무만을 처리하도록 했으나 조선대 이사회는 일상적인 이사회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

이사들이 애매모호한 긴급처리권의 허점(?)을 이용,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루면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 실제로 임기만료된 조선대 이사들이 이사 정원을 늘리는 정관변경을 시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사회의 일반 상식마저 무너뜨린 조선대 이사들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원이사 선임 후, 학교 혼란 우려 고조=학생들은 결원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나섰다. 향후 수업거부를 포함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교수협의회와 노조 등도 연일 회의를 갖고 결원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하는 물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구성원들 상당수는 이사 일부가 옛 경영진측 이사와 동조, 총장을 제치고 총동창회장을 결원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번 결원이사 선임으로 이사회의 역할 관계가 옛 경영진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는 사립대이면서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없는 민립대학의 형식으로 운영돼왔다. 교육부가 이 같은 조선대의 역사성을 감안해 이사진 구성에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바람이다.

낙지가 없다

전남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제철을 맞았지만 예년보다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어민들도 발을 구르고 있다. 고수온과 가뭄 등 바다 생태계의 이상 현상으로 추정할 뿐 원인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1일 전남도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추석 이후 본격적인 낙지철을 맞아 무안, 신안, 함평 등 서남해안 갯벌에서 '세발낙지'로 알려진 어린낙지 등 낙지잡이가 시작됐다. 하지만 어획량은 예년에 비해 20~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유난히 더워진 올 여름 고수온과 가뭄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 어획으로 낙지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획량 예년 20~30% 불과

고수온·가뭄 여파... 가격 천정부지

가을철 낙지잡이 부진은 지역 어민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적지 않다.

전남지역 낙지잡이 어가는 주낙으로 잡는 연승 복합어업이 7800여건, 손으로 잡는 맨손어업이 3만3000여건으로 연간 소득은 지난해 기준 903억원에 이르고 있다.

낙지 어획량은 3620t으로, 전국 5799t의 62%에 이르는 등 전남지역의 대표 수산물이다. 특히 무안과 신안 등 갯벌을 낀 지역은 어민들이 맨손으로 잡는 이른바 관해어업이 대부분으로 가계에 큰 보탬이 됐다.

어획량이 줄어들자 낙지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세발낙지는 집당 최소 8만~1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큰 낙지는 18만~25만원선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F1 가는 길

영암IC~삼호교차로 임시 개통

전남도는 F1 기간 동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화원~삼포간) 공사 구간 중 영암IC~삼호교차로 3.8km 구간을 임시 개통한다. 지난 2005년 착공해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이 국지

도 공사는 해남 화원면 영호리에서 영암 삼호읍 삼포리에 이르는 총연장 12km로 전남 서남부지역과 목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다.

이번에 임시 개통하는 영암IC~삼호교차로를 이용하려면 광주 방면은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통과한 후 삼호교차로를 통해 진입하면 된다.

또 전남 서남부지역인 해남, 진도 방면 관람객은 영암IC를 통해 경주양에 진입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